

전북대 연구마을 지원사업

지역 중소기업 혁신 이끈다

'산학협력기술개발' 공동개발기관 추가 선정

전북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센터장 윤순일 교수)가 지난 2014년 중소기업 사업 선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산학융합 연구마을지원사업'이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공동개발기관을 신규로 모집한 결과 산학협력기술개발 공동개발기관에 추가 선정됐다.

연구마을 지원사업은 지역 주력 산업기반 산학협력 공동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기업부설 연구소를 집적화해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북대는 지난 2014년 전국 3개 기관을 선정하는 이 사업에 선정돼 2년 동안 융복합소재와 농생명산업 중심의 기업부설연구소 20여개를 입주시켜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 신기술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왔다.

특히 사업화 연계지원을 통해 35건

의 과제기획과 38건의 경영 컨설팅, 기술지도 49건, 시험인증 50건, 특허지원 62건, 기술사업화 11건, 마케팅 판로개척 14건 등 기술적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25명의 신규 인력 채용과 4억3천여만 원의 매출 성과를 올려 경제적 성과도 도출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전북 내 유관기관과 MOU를 통해 해외 시장 개척단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대륜산업, (주)크리자인 등의 해외시장진출을 중점 지원하여 현재 수출계약체결을 진행중에 있다.

올해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해외진출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연구마을 사업은 이러한 그간의 운영 성과가 우수 평가를 받아 추가로 선정, 지원된 것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전북대는 이미 구축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산업과 주력산업 분야로 확대해 관련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20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해 참여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순일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은 "이번 연구마을사업 추가 선정으로 글로벌 성장에 가능한 지역 기업을 지역 기관과의 협업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물적 자원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전북대 연구마을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 등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전북대 박물관-완판본문화관 상호 발전인·물적 교류 협약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성규)과 전주 완판본문화관(관장 인준영)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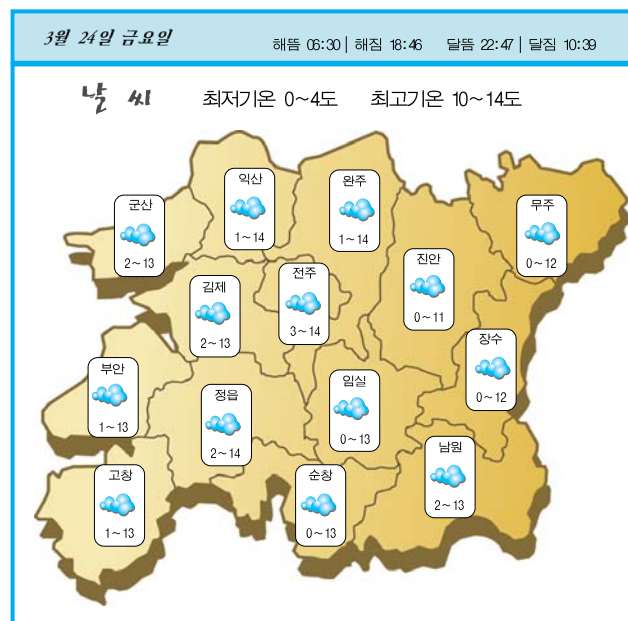
양 기관은 지난 22일 오후 전북대 박물관에서 협약을 갖고 학문 발전과 지역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인·물적 교류를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역사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교류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출판물과 관련 자료도 긴밀히 교환하기로 했다.

김성규 관장은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박물관에 보관 중인 5천50점의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원형책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특강 및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전북 초·중·고 학생수 전년대비 7311명 감소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2017학년도 각급학교 학급편성 결과 도내 공립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는 21만5,58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11명, 3.3%가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학급수 감소규모는 0.9%에 그친다.

학급수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은 전북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초·중·고 학생수는 7,311명 감소했는데 초등학교가 0.5%로 감소규모가 가장 작고 다음으로 고등학교는 4.7%, 중학교는 6.3%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초·중·고 학급수는 지난해

보다 86개 감소에 그쳤는데 초등학교는 15개(0.3%), 중학교 29개(1.4%), 고등학교는 42개(1.8%)가 감소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추진으로 2017학년도 학급편성 결과 도내 학교들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5년 전인 2013년 대비 초등학교는 0.7명 감소한 20.1명, 중학교는 4.1명 감소한 27.1명, 고등학교는 2.1명 감소한 28.4명으로 나타나 도내 공립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초등학교 2곳 아동 의견 반영 놀이공간 조성

시·도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 초등학교 2곳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공간이 조성된다.

전주시와 전북도교육청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은 23일 도교육청에서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 등 3개 기관이 힘을 합쳐 학교 안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공간을 조성해 아동이 친구들과 함께 맘껏 놀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학교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심사기준을 마련해 2개교를 선정하고,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 워크숍 등을 거쳐 설계·실행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정 학교 아동들이 다양한 놀이 활동을 안전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은 학교에 기부돼 운영될 예정이다.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장은 "상호 협약을 통해 아동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는 놀이시간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놀이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놀이



전주시 박순중부시장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장은 23일 전북도교육청에서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는 배움이자 성장이고,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만큼 학교 안 아이들의 놀이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고 화답했다.

박순중 전주시부시장도 "아이들의 놀

이 환경을 개선하고 조성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전주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전북도교육청과 놀이터

만들기, 전주이아숲 조성 등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학교와 지역 사회 안에서 강화되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기관 내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의 대응 역량 및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달 중 학생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학교 관계자, 지역별 보건소 관계자 등 총 1백여명이 참가하며 가장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토론식 도상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훈련은 전북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자문을 받아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전체 참가자를 한 조당 10명씩 10개조로 편성해 시나리오별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또 토론을 통해 훈련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가 이어진다.

한편 도교육청은 모의훈련에 앞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14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협의회를 갖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학생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계획안에 대한 안내와 모의훈련 시 사전 교육 및 운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